

통일이 올 날을 기다리는 파주(坡州)

강 욱
자유기교가

잡초 우거진 경의선 철도 중단점에는 기차 하나가 덩그러니 서있었다. 기차 머리 위에 세워진 팻말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고 써있는 글귀는 반세기 동안 남북분단의 상징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9월 경의선 철도 연결 기공식이 이루어지면서 녹슬은 철조망이 말끔히 걷어졌다. 지금은 선로공사가 한창인 그 모습을 보면서 민족의 소원인 통일의 그 날이 성큼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 든다.

파주시는 21세기 통일한국의 꿈과 희망을 열어갈 중추도시로 활력이 넘쳐흐른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교류협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통일의 길목에 위치한 파주시는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서울 구과발에서 1번 국도인 통일로를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파주시의 중앙을 통

과해 판문점에 다다른다. 또한 행주대교에서 한강 옆으로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따라 북으로 달리면 통일의 염원이 담긴 드넓은 파주땅이 펼쳐진다. 통일전망대가 우뚝 바라보이고 통일동산, 또 임진각과 자유의 다리를 만나게 되면서 통일도시 파주의 미래상을 실감할 수 있다.

파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부터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북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서쪽으로 김포시와의 사이에 한강하류가 흐른다. 한편으로는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문산천과 한강으로 빠지는 곡릉천이 군의 남쪽 일대를 흐르며 곳곳에 지류를 뺏어 그 언저리에 기름진 평야를 펼쳐놓았다. 또한 군의 동북부 지역에는 감악산과 파평산이 높이 솟아있어 임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고구려 장수왕 때는 술이홀현, 신라시대

에 와서는 봉성현이라고 불린 파주는 삼국 시대부터 남쪽과 북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신라 사람과 고구려 사람들이 서로 오갈 때 반드시 거쳐갔다는 칠중성 유적이 적성면 구읍리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려조에는 서원현이라 했고 다시 조선조에 와서 원평군이 되었다가 세조 6년 파주목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와 와서도 파주가 중요한 길목의 구실을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리적으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파주의 위쪽에 위치하였고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그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고려말에서 조선 초 까지 살았던 학자 권근이 말했듯이 “두 서울 중간에 유숙하는 곳, 세 도(道)에서 모여드는 길”이 된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서울과 개성까지는 거리가 거의 같아 오가는 나그네들이 많이 머물렀다. 따라서 이곳에는 광탄원 등 역(驛)과 원(院)이 특히 많이 들어섰다.

파주는 조선말기인 고종 32년(1895)에 파주군으로 된 이후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었다가 1996년 도농 통합도시인 파주시로 승격되었다. 6.25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 5일장인 문산읍의 문산장(汶山場)과 조리면 봉일천리의 공릉장(恭陵場)은 큰 장(場)으로 이름을 날렸다. 문산은 김포, 강화, 평양 쪽으로 가는 조깅배나 새우젓배가 드나드는 포구였으며, 또한 마을 안에 예종 임금 부인의 무덤인 공릉이 있어 공릉장이라 불리던 장은 고양군, 파주군, 양주군 북쪽의 산물이 모이던 곳이었다. 흔히 파주장이라고 불린 이 5일장은 특히 쇠전

이 유명했는데 경기도 안에서 ‘안성장’ 다음에 ‘파주장’이라고 할 만큼 그 규모가 컸다. 그러나 육이오 전쟁이 일어난 뒤로 파주장의 명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문산을 내나 공릉장이 서던 봉일천리는 현대화에 밀려 다 옛 모습을 잃어 버렸다.

파주는 장차 통일시대를 선도할 한국의 중심도시로서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파주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임진강과 한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을 모티브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환경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파주는 지리적으로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정책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의 북쪽에 자리잡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군사지역에 드는 이곳에는 규모가 큰 공업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의 출범과 시 승격 이후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파주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통일동산 지구내 서화촌 조성이 추진되고 ‘ASE 코리아’, ‘시그네틱스’ 등 대규모 첨단기업이 진출하였다.

또한 파주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 파크’와 ‘제3땅굴’, ‘도라전망대’를 통일관광 코스로 지정하고 파주시가

자체 개발한 ‘DMZ 철조망’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해외관측 활동을 하고 있다.

파주는 그 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토박이 문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으로 보다는 사람과 문물들이 거쳐 지나가는 길목으로서의 역할이 더 컸기 때문인 듯도 하다.

파주 토박이를 찾자면 파평 윤씨를 꼽을 수가 있다. 파평 윤씨는 이 나라에서 대를 이어 권문세가로 이름을 날린 뼈대있는 집안의 하나로 이곳 파평면 놀노리가 그들의 본관이다. 「동국여지승람」 ‘파주목’편의 ‘인물’조에는 윤씨 가문의 이름이 잇달아 오르내리고 있다. 윤 관은 고려 예종 때의 명장으로 여진족을 물리쳤다. 그리고 윤관의 다섯 아들의 하나인 윤언이는 그 무렵의 으뜸가는 학자로 알려진 김부식에 못지 않게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파평 윤씨의 화려한 인맥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성종때의 윤 호는 임금의 장인으로 벼슬이 우의정에 올랐고 윤필상은 영의정을 지냈다. 명종 때에 을사사화를 일으킨 윤 임과 윤원형도 이 집안 사람이었고 그 밖에도 이 나라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무수히 많다.

파주는 지리적 역사적 여건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발견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한 학문과 예절을 숭상해온 전통 문향의 고장으로 선현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명장 윤

관 장군, 청백리의 귀감인 황희 정승, 대학자인 율곡 이이선생, 성리학의 대가 성혼 선생 등 역사적 인물들이 이 고장에서 태어났다.

파주시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임진강은 그 길이가 254km로 남과 북을 통틀어 일곱번째로 긴 강이다. 임진강은 물살이 빠르고 그 강가에 층층이 톱날 모양으로 깎인 바위가 늘어서 있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명재상 황희는 이 강에 취해서 늘그막에 강가에 반구정(伴鵠亭)을 짓고 갈매기를 벅삼아 여생을 보냈다. 문산읍 사목리 임진강변에 있는 반구정 옆에는 황희 정승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방촌영당과 경모재가 함께 자리잡고 있다. 청백리의 표상으로 추앙받는 황희의 묘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다.

화석정(花石亭)이 자리잡은 파평면 율곡3리의 율곡마을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였던 이이의 고향이다. 그는 어렸을 적에 이 마을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벼슬자리에 오른 뒤에도 황해도 해주의 경치 좋은 석담과 함께 이곳을 자주 찾았고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곳에서 소일했다.

화석정은 율곡마을의 북쪽에서 임진강을 건너 멀리 장단 쪽을 바라보고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에 올라서 있다. 화석정은 원래 고려 말의 학자인 야은 길재가 살던 곳이었는데 율곡의 증조부가 물려받았다고 한다. 이 정자의 난간에 기대서 바라보면 예전에는 한양의 삼각산과 송도의 오관산이 까마득히 펼쳐진 하늘 가운데에 머리카락

만 조금 드러냈는데 그 경치가 뛰어났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화석정은 1966년 현대에 와서 새롭게 복원한 것이다. 건물의 정면 중앙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쓴 ‘花石亭’ 현판이 걸려 있으며 내부 뒷면에는 율곡선생이 8세 때 화석정에서 지었다는 ‘八歲賦詩’가 걸려 있다. 율곡은 황해도 석담에서 죽었으나 이곳 천현면 동문리의 선산에 묻혔다.

용미리 석불입상은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龍岩寺) 경내에 있으며 보물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석불입상은 천연 바위벽을 이용해 그 위에 목, 머리, 갓 등을 따로 만들어 얹어놓은 2구(軀)의 거대한 불상으로 토속적인 맛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구전에 의하면 등근 갓을 쓴

왼쪽의 원립불은 남상(男像), 사각형의 갓을 쓴 오른쪽의 방립불은 여상(女像)을 상징한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과주에는 이밖에도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장릉(長陵), 공순영릉(恭順·永陵), 소령원, 유길원, 보광사 대웅보전, 윤관장군묘, 신사임당묘, 허준선생묘, 자운서원, 파산서원, 오두산성, 감악산비 등 실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난 과주는 향토문화 축제인 ‘율곡문화제’를 비롯해 ‘과주 장단 콩 축제’ ‘과주 버섯 큰잔치’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신명나는 문화 축제를 펼치며 장차 ‘통일의 꿈’을 실현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